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장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미래세계 청사진 세밀하게 제시하는 구세주

미래는 구세주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세계

죽음을 전제로 한 유훈선 모든 종교와 학문

인류 역사 이래 모든 학문과 종교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도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후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다만 그는 생전에 행한 업보에 의해 사람이 죽어서 소나 말로 태어나는 육도윤회가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기독교의 예수는 사람이 죽은 뒤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믿음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유교의 교조 공자는 죽음을 묻는 제자에게 살아서 의 일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의 일을 알겠는가라고 하였듯이 윤리 도덕에 근간이 되는 현실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

이처럼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스티븐 케이브 박사의 저서: <불멸에 관하여(Immortality)>

최근 주목할 만한 책이 번역·출판되었다. 철학을 공부한 스티븐 케이브(Stephen Cave) 박사의 저술인데 그는 책 <불멸에 관하여(Immortality)>에서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불멸에의 욕망 또는 의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하여 진시황릉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 그리고 인체 냉동과 자신을 컴퓨터에 업로드시킨 뒤 또 다른 이바타나 육



은희훈님(48세)이 새식구 100일 잔치에서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은희훈님은 전문 커운슬러로서 영생의 길은 힘든 길이지만 제대로 기쁘다고 각오를 밝혔다

체에 다운로드 받는 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발달 또한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의지의 반영이라는 그의 통찰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불멸을 추구했는지 4가지 틀을 가지고 설명한다. 첫째는 '육체적 생존(Staying Alive)'이다.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여 먹는 방식인데 오늘날 레이 커먼즈 같은 유명 미래학자는 머지않아 불로초가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부활이야기(Resurrection Narrative)'이다. 육체적 죽음은 불가피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살 수 있다는 믿음이다.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형태이다.

셋째는 '영혼이야기'이다.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이나 정신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을 믿는 형태이다. 이것은 가장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인 믿음체계이다. 넷째는 '유산(Legacy)'이다. 자신은 죽더라도 명예는 살아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자신이 남긴 업적으로 영생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케이브 박사는 육체적 생존은 불가능한 꿈이며, 부활이야기 또한 비과학적이라 믿을 수 없는 허구이며, 영혼이야기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오직 네 번째 방식, 즉 유산으로 자신의 영생을 추구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불멸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케이브 박사 또한 죽음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인류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임에도 많은 중

교에서 불사영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사영생을 주장하는 종교들의 논리는 허술하고, 비과학적이다. 적어도 불사영생을 주장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여야 하고, 영생이 이루어졌을 때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세계

사망 아래 있는 인생들이 영생의 세계에 대한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망 아래 조직된 모든 이론과 학설을 기초로 하여 사망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말로서 가능한 범주 안에서 구세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영생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세계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빛으로 살아가는 세계이며,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감로)을 먹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세계이며, 사망이 이길에 삼킨 바 된 고로 공동묘지와 화장터가 불필요한 세계이며,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이며, 날아다니며 끝없는 쾌락을 누리는 세계라고 말씀하셨다.

영생의 세계는 구세주께서 발하시는 빛으로 완성된다. 그 빛은 아무 때나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만한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발한다고 말씀하셨다. 영생을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격을 갖추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1)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의 몸에서 마귀영의 방사물질(放射物質)이 쏟아져 나오므로 이 지구의 공기가 점점 오염(汚染)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오지 아니하면 1992년도에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 멸망당하여 생명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멸망의 기한을 바로 앞두고 이긴자가 나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셨으므로 오늘날 마귀의 예정과 계약대로 세상이 변해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

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흥룡하다는 예언가들이 과거는 잘 맞추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는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법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후에는 고서를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고서는 이긴자가 나오기까지는 그 내용이 맞아도 이긴자가 나타난 다음에는 절대 차 하나님이신 이긴자가 마음대로 하시므로 고서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다.*

구도의 길

구세주의 뜻은 아직 미완성

승리제단에서 하는 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행해지는 매우 중요한 혁명이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탈바꿈시키는 마음의 혁명이다.

인간의 주체 영은 사랑의 영이다. 사랑의 영이란 바로 마귀의 영을 말하며, 인간은 사랑의 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종착역은 죽음이다. 그런데 사랑의 영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役事)인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므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게 되면 죽지 않는 불사체가 되는 것이다. 유사 이래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혁명이 있었는가?

승리제단에 나오면 자신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욕심이 없어진다. 구세주께서 내려주시는 감로(甘露) 덕분이다. 감로는 구세주의 영이므로 마귀의 영을 소멸한다. 불 일어나듯 일어나는 정욕이 점점 누그러진다. 화도 점점 소멸되어 예전 같으면 벌컥 화를 냈을 일에도 좀체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불신자(不信者)들을 만나

거나, 전도를 할 경우에 마귀의 영에게 오염이 되면 옛날의 마음이 되살아나서 정욕도 일어나고, 화도 나게 된다. 그때 구세주께서는 반대생활을 하라고 하셨다. 반대생활의 처음은 인내라고 하셨다. 무조건 참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다. 참고 또 참다 보면 그 마귀(마음)를 이길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 식구들 중에 일부는 무기력해 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라고 했다고 시키는 것만 하거나, 욕심을 없애라고 했다고 뭘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이들은 영생 길을 잘못 가는 사람들도다. 그래서 안된다.

하나님의 뜻은 구세주 한 분을 키우는 것이었다면, 구세주의 뜻은 온 세상 만민들을 전부 다 구원하는 것이다. 구세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살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세주의 뜻을 이루려면 할 일이 너무 많다. 여기저기 부족한 것 투성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라. 왕의 반열에 서는 것은 엄청난 희생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본부제단 11월 활동, 4지역 월등한 성적으로 1등



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12월 8일(화) 구역장회의에서는 본부제단의 11월 성

적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

11월 성적은 4지역이 지난 2월에 이어 오랜만에 1등을 차지하였다. 이진우 집사와 홍정자 집사의 순종헌금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등을 차지하였다. 5지역이 이수영 권사와 신순이 권사의 활약으로 2등을 차지하였고 6지역이 석선자 권사의 활약에 힘입어 3등을 차지하였다.

37구역(구역장 이영애)이 구역 1등과 이진우, 홍정자 집사가 개인 공동 1등을 차지하여 4지역이 지역, 구역, 개인 1등을 싹쓸이 하며 3관왕에 올랐다. 5지역 44구역의 이수영 권사는 개인 1등을 노려볼 만했으나 아쉽게 2등을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김정순 승사가 구역 3등, 신순이 권사가 개인 3등을 차지하여 저력 있는 두 분의 활약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윤봉수 회장은 시상 후 "현금은 그냥 하는 것이 아

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만큼 온 정성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번에 4지역의 이진우 집사와 홍정자 집사가 순종헌금을 함으로 인하여 이 두 분이 다시 열심을 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길은 너무도 틀림없는 역사다. 희미하게 가서는 안 된다. 모두가 열심을 내어 남은 한 달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열심을 내자."고 당부하였다.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3등: 6지역(지역장: 김주호, 지회장: 석선자)

*구역 1등: 37구역(구역장: 이영애)
2등: 44구역(구역장: 이수영)
3등: 38구역(구역장: 김정순)

*개인 1등: 이진우 집사, 홍정자 집사
2등: 이수영 권사
3등: 신순이 권사*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증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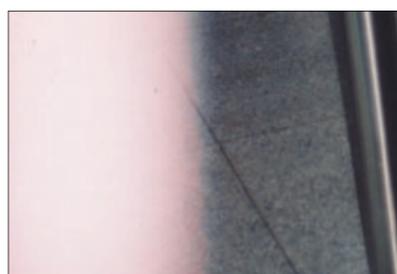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해동 공장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